

‘화가의 유적, 소금같은 슬픔 덩어리, 그리고 기만된 권위’

《화가의 집을 찾아서》, 《암스테르담의 커피 상인》, 《발칸의 장미를 내게 주었네》,
《거짓 나침반》, 《가재미》, 《네차예프, 혁명가의 교리문답》,
《역사의 원전》, 《주강현의 관해기》(전3권), 《시골의사의 부자 경제학》…

7월 하순 대부분의 중앙일간지들은 샘터가 펴낸《화가의 집을 찾아서》를 일제히 주목했다.

25일자 <한겨레>는 “화가 지명도에 따라 유적이 많이 보존된 화가가 있는가 하면, 전혀 남아 있지 않거나 화비 형태로만 남아있기도 한 현실 앞에서 ‘내 작업은 작은 씨앗일 뿐이고, 누군가 물을 주고 가꿔 키워나갔으면 한다’는 한씨 말이 겸사로만 들리지 않는다”고 책에 들인 공력을 추켜세웠다.

또 “그 스스로 화가인 한씨한테 이러한 선배들 자취를 찾아가는 과정은 독자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한다는 측면보다 스스로 배우는 면이 더 커 보인다”며 이 책의 행간의 의미를 나름대로 규정했다.

대교 베텔스만의 《암스테르담의 커피 상인》도 적잖게 언론의 주목을 받은 책. <서울신문> 28일자는 대표적인 팩션류 소설로 이 책을 꼽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커피를 소재로 당시 암스테르담에서 막 열기를 띠기 시작한 선물 중개소와 유대인들의 생활상, 커피 거래에 얽힌 음모와 반전 등을 숨씨있게 버무려낸다”고 책의 가치를 평가했다.

생각의 나무가 펴낸 정미경 소설집 《발칸의 장미를 내게 주었네》는 각 신문들이 헌사에 가까울 만큼 화려치 일변도의 묘사로 부각시킨 책이다.

그 중 <한국일보> 14일자는 “비루한 다큐멘터리 같은 우리 삶의 이면들을 차갑게 응시한다”고 느낌을 전하

는 한편, 돈으로 이국(異國) 사형수의 신장을 사서 생을 연장한 뒤 그 죄의식에 시달리거나, 타인의 음탕한 목소리를 들어야만 간신히 발기하는 남자 ‘K’와 그 ‘조잡한 픽션’ 속에서 스스로 사랑 받는 여자를 연출함으로써 대리 만족하는 ‘나’ 등의 줄거리들을 소상히 인용했다.

그리곤 “소설 속 인물들의 자조와 냉소와 푸념과 탄식은, 수궁하기 싫지만 엄연히, 우리 일상의 국면에 닿아있고, 빈약한 실체의 육성으로 사무친다”며 “작가는 이 서글픈 삶의 이야기를 ‘바다 위로 빗방울이 스미는 풍경’을 바라보며 ‘비냄새, 바다냄새’를 맡고 선 자의 표정과 내면으로 나직이 전한다”고 스스로의 감상을 표현했다.

15일자 <조선일보>는 “소설은 삶에 새겨진 상처들을 보여주나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은 그 상처가 준 고통에 익숙해질 뿐”이라고 서평자 나름대로 파악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곤 “내 소설을 읽고 나면 오후의 염전에 남는 소금처럼 슬픔의 덩어리가 남기를 바란다”는 작가의 말로 소설집 《발칸의 장미를 내게 주었네》의 감동을 묘사했다.

22일자 <경향신문> 등 대다수 일간지들은 존 스토버·셀던 램튼의 《거짓 나침반》에 대해 다각도에서 서평을 가했다. <경향신문>은 “전문가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만과, 이를 만들어내는 거대기업, 홍보산업, 전문가의 ‘3각 동맹’을 파헤친 책”이라며 “미국의 비영리단체 ‘미디어민주주의센터’의 활동가인 저자들은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공고한 3각 동맹이 진실과 도덕에

대한 우리의 '나침반' 을 어떻게 교란시키는지 폭로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홍보업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기자들 입속에 집어넣는 기술에 통달했다"고 꼬집는가 하면 "구미에 맞지 않는 기사가 나가지 못하도록 회유와 압력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라는 저자들의 코멘트에 밑줄을 그었다.

신문은 "이처럼 거대한 기만의 세계 앞에서 저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라' 는 대답을 내놓는다"며 "전문가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 질문하고, 그들이 제공받는 자금 출처를 살피고, 그들 입장이 어떠한지 확인하라"고 책의 내용을 들어 강조했다.

문태준의 《가재미》는 모처럼 언론을 비롯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시집이다. <국민일보> 23일자는 "시집을 받아 들고 인용할 시를 고르려고 페이지의 한쪽 귀퉁이를 접어 가다보니 안 접은 시가 없을 만큼 거개의 시편들이 고른 밀도와 무게를 갖추고 있다"며 "중견 시인의 시집도 다섯 편을 접기가 버거운데 67편 가운데는 올 소월시문학상 수상작 '그때에는', 지난해 미당문학상 수상작 '누가 울고 간다' 도 끼여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문은 또 "가재미" 역시 지난해 시인과 평론가 120여 명이 뽑은 '문예지에 실린 가장 좋은 시'로 선정된 바 있으니 김소월 백석 박목월 조지훈 등 한국 서정시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평단의 상찬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2일자 <경향신문>은 또 《네차예프, 혁명가의 교리문답》을 살피느라 적잖은 지면을 할애했다. 세르게이 겐나 디예비치 네차예프(1847~1882)는 20세기 모든 독재자와 급진 과격 혁명운동분자들의 원형이라 할 만한 인물. 신문은 "네차예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 에서 묘사된 불길한 인간 베르호벤스키의 실제 모델이었으며, 한때 러시아 아나키즘의 대부였던 미하일 바쿠닌을 사로잡은 이름이었으며, 무엇보다 과도 같은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네차예프가 바쿠닌과 함께 작성한 26개조로 이뤄진 '혁명가의 교리문답' 은 이들의 자기희생적이면서도 섬뜩한 열망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바다출판사가 펴낸 존 캐리의《역사의 원전》은 두터운 책의 볼륨에 걸맞게 각종 매체의 다양한 관심을 불러 일

으킨 책. 15일자 <동아일보>는 "세계사 속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에서 '바로 그 시간, 그 자리' 에 있었던 '목격자' 들의 현장 기록 180개를 모아 엮었으며, 실제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보고 싶던 과거 그 공간에서 있는 듯한 느낌을 전해 준다"고 말했다.

특히 신문은 "영국 옥스퍼드대 영문학과 교수인 저자는 역사 기록의 무미진조함을 극복하기 위해 딱 한 가지만 생각했다"며 "원래 현장에 있으면서 기록을 남겼던 사람의 지식, 추측, 직관, 문장력보다 '정말 내 눈으로 직접 봤다' 는 현장감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대목만 추려 낸 것. 직접 목격한 자의 가감 없는 솔직함만이 신뢰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라고 친절한 해설을 곁들였다. 그러곤 "책을 읽다 보면 실제 현장 주인공들의 눈물, 땀, 피 등 짝짜름한 맛이 혀끝에 느껴질 정도이며, 흔히들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 고 하지만, 이 책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에도 의미를 부여한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주강현의 관해기》(전3권)에 대해 <한겨레>는 '바다를 향한 인문학의 첫 대중적 안내서' 를 표방한 책으로 규정했다. "지은이가 수십 년에 걸쳐 직접 발품을 들여 답사하고 확인해보지 않았다면 발견할 수 없는 일상 문화사들이 가득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독도 분쟁이나 드라마 '해신' 에 자극 받은 해양부국강병론이나 해양문화강국 같은 거대담론은 가능한 한 피해갈 것이라고 애초부터 밝히고 있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특히 '역사는 있되 기록은 없이 소외된 것것들의 삶터' 였던 까닭에 무척이나 고단한 작업이었다는 지은이의 말을 인용하며, "그 작업을 기꺼이 도와준 200명이 넘는 어민과 해양인들의 이름을 '1차 저작권자' 로 책말미에 밝혀둔 정성이 진솔하게 느껴진다"고 느낌을 전했다.

한편 <매일경제신문> 27일자는 경제신문답게 공병호 공병호연구소장의 글을 통해 《시골의사의 부자 경제학》의 서지적 의미를 소상히 전하고 있다. 공 소장은 "이미 '시골의사' 라는 필명으로 널리 알려진 저자는 경제나 경영과는 거리가 먼 안동에서 개업하고 있는 외과의사이나 이전 어떤 투자서에 건주어 볼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쓴 책"이라며 "20년 동안의 투자전문가로서의 갈고 닦은 탄탄한 실력이 이 책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그 까닭을 설명했다.

이 달의 책, 이 달의 저자

특히 공 소장은 저자의 투자 순위가 “놀랍게도 지난 20년의 자산별 재테크의 평균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복리예금, 채권, 부동산 그리고 주식의 순서”라며 “집값과 땅값이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뒤집어 보면 복리예금이 높다는 것은 다소 의외”

라고 말했다. 투자전문가 입장에서 공 소장은 “저자는 재테크를 대단히 위험하고 승리하기 쉽지 않은 전쟁터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근래 읽었던 재테크 서적 가운데서는 인상에 깊이 남은 책 가운데 하나이기에 일독을 권하고 싶다”고 단언했다.

정리=〈출판저널〉 편집부

언론이 주목한 책들

〈한국인, 다음 영웅을 기다려라〉 로버트 러플린 지음 | 이현경 옮김 | 한스미디어

〈새벽강〉 김지하 지음 시학사	〈비단길〉 김지하 지음 시학사
〈일상의 경제학〉 더난	〈내 머릿속의 개들〉 문학동네
〈빈곤의 종말〉 21세기북스	〈미국 예외주의〉 후마니타스
〈뿌리 깊은 나무1, 2〉 밀리언하우스	〈아케이드 프로젝트1, 2〉 새물결
〈왕의 남자〉 예담	〈괴물〉 흥익출판사
〈그 산을 넘고 싶다〉 샘터출판사	〈일본의 발명과 근대〉 이산
〈시간의 기술〉 들녘	〈성공하는 사람들의 도덕지능〉 북스넷
〈과학은 If ?〉 다른세상	〈풍성검을 타고 동강을 동동둥〉 문원
〈엘비스 끝나지 않은 전쟁〉 이마고	〈꽃미남과 여전사1,2〉 노마드북스
〈머니볼〉 한스미디어	〈귀신의 시대〉 랜덤하우스중앙
〈한국사회 권력이동〉 굿인포메이션	〈위대한 양심〉 열대림
〈일본문화의 힘〉 동아시아	〈안데르센 평전〉 미래 M&B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한겨레출판사	〈일본문화의 힘〉 동아시아
〈마커1,2〉 열림원	〈굼벵이 주부〉 샘터
〈유쾌한 팝콘 경쟁학〉 국립증권경제연구소	〈철없는 전자와 파란만장한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인류씨 이야기〉 지성사
〈각설탕〉 예림당	〈영국적인, 너무나 영국적인〉 기파랑
〈20세기 한국소설〉(전50권) 창비	〈유서필지〉 사계절
〈땡〉 해냄	〈행복〉 비즈니스북스
〈앤디 워홀 손 안에 넣기〉 마음산책	〈박정희 평전〉 이학사